

No. 66

IIRI Online Series

코로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 용 헌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2020. 4. 29

코로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 용 현 |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2020년 4월 21일 미 WTI 원유 5월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0불대까지 폭락하였다. 이 가격은 선물 마감 가격이라 실제 현물거래 가격과는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격 추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심각한 수요 감소와 저장시설의 부족에 대한 우려, 대공황 수준의 경기침체 현실화로 인해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급의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후 지속된 공급과잉이 비축설비 확충과 비축유 증가로 일시 해결되었으나, 최근의 공급물량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설상가상 수요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30% 정도 감소하여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석유는 과거 전략자산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대체재와 다수 새로운 공급자의 출현으로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특히 공급비용이 하락하고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어 공급의 시장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석유의 상품화(commoditization)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이제 원숙한 단계(new norm)로 진입했다고 보여진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OPEC 비회원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반감되었고, OPEC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수입 감소로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물가 상승율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최저인 배럴당 10불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저장설비가 부족한 원유 생산업자들이 공급과잉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가격 할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 처에서 원유 현물이 배럴당 10불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생산중단(shut-in)의 비용이 만만하지 않고 생산중단 후에 다시 생산을 재개할 때 드는 제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낮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의 깊이와 방향에 따라 국제 유가의 향배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석유 수급, 재고, 저장설비를 감안하면,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배럴당 10~25불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경제가 충분히 회복한다 해도 배럴당 30~40불 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에너지 기업이 도산하고 에너지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이 바뀌어 투자 유인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가의 일시적 급반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원유 공급사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유가는 제한적으로나마 일시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세계 석유산업은 한계기업의 인수·합병(M&A)과 통합(consolidation)이 활성화되고, 석유의 상류 부분에서 신규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산유국의 신규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쿠웨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며 경제

적 피해가 현실화되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발 물러서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급격한 유가 하락의 배경에는 탈(脫)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2014년 이후 시작된 공급과잉의 지속, 수요 증가세의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석유 상류 부분의 신규투자 감소와 석유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감소가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어 파괴적인 수요감소가 일어나고, OPEC+의 감산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량을 일일 약 1,000만 배럴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전세계 원유와 석유제품 저장설비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원유가격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당분간 회복 불능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곧 석유 수입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과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 산유국의 정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러시아 국가의 균형예산을 위한 적정 유가는 각각 80불과 40불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동의 정정 불안은 한 순간에 공급사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지역적으로는 종교적 갈등, 민족적 갈등을 야기할 충분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지속으로 피해를 겪어온 경제 하에서 불어 닥친 코로나 사태의 여파는 이란의 지도부를 석유 수송로의 요충인 페르시아만에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키는 막다른 길에 내몰 수도 있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중동에서의 원유 수송로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면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 내지는 폭등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각국의 고민은 깊을 것이다. 중동 지역 전체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탈(脫) 석유 경제 정책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SWF)를 포함한 각국의 공공투자펀드의 해외 투자도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많은 중동 국가의 경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의 석유 수입에 일정 부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중동 전체의 정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1~12년의 아랍의 봄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80불 수준임에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한 튀니지에서 시작하여 중동 전체로 확산되었다. 만약 국제 유가가 20~30불대로 오래 지속된다면, 중동 지역의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중동에 많은 것을 의지해 왔다. 이 지역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해오고 있고, 건설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도 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였다. 중동은 여전히 우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 지역의 불안은 우리 경제에도 큰 짐이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의 급락과 앞으로 언제든 발생 가능한 급등은 국제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시킬 수 있다. 다행히 단기적인 시장 충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기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끝/

저자 소개

정용헌 교수는 현재 아주대학교 에너지 시스템학과의 겸임교수이며 한국의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환경정책 자문관을 상근 및 비상근직으로 10여 년 역임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실무 및 외교 경력을 쌓았다. 대표적으로 일본 동경 아시아태평양 에너지연구센터(APERC)의 부소장직으로 10년간 재직하며 동 센터의 설립과 국제기구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역내 에너지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기관인 국제 스마트그리드협의체(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정용헌 교수는 인도네시아 LNG 구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스마트그리드 사업, 이라크의 Akkas 가스전 개발 사업, 이란의 석유화학 현대화 등 여러 국제협상과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란제재 협상 및 20여 년간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SK 에너지, 한화토탈, 남부발전 등 사업 자문을 제공하였다. 정용헌 교수는 현재 미 아스펜 글로벌 포럼(Aspen Global Forum) 회원 및 한국의 서울포럼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미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mail: yonghun.jung@gmail.com)